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중심으로-

김정유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rker

-Focusing on Tong/ri Chiefs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Program-

Jung-Yoo Kim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년 이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통해 이·통장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업담당자 3명으로 하였으며, 각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로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소속기관 내외부적으로 느끼는 부담과 스스로의 부족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동료, 참여 이·통장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이장·통장, 게이트키퍼, 내러티브, 자살예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program worker' experiences in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program using tong/ri Chiefs. Participants were three workers who have been in charge of this program for more than 2 year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narrative study,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y started the program with burden and fear. They felt a heavy burden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the organization and lack of themselves. However, they were able to continue their work despite these difficulties because of the support of their families, colleagues and tong/ri Chiefs. And, they suggested ways to revitalize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program using tong/ri Chiefs.

Key Words :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rker, Chiefs of tong/ri, Gatekeeper, Narrative, Suicide Prevention

1. 서론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100년에 걸쳐 경험한 근대화

를 불과 30년 만에 성취했다. 이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도덕적 관념보다는 금전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제도로,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 체제도 변화되었다. 이는 구성원에게 든든한 사회적 완충재 역할을 담당하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자살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위기 시기인 1997년-1998년과 2008년에 급격하게 증가한다[1]. 물질만능주의 팽배와 공동체 약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빈부격차 증대와 사회적 불신은 결국 자살로 이어지게 충분한 원인이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을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13,799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1].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하루에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2].

이처럼 한국에서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살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해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자살문제의 해결방법은 단 하나 사전 예방이다. 현재 한국의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살예방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5]. 이러한 방식의 자살예방사업은 주변의 자살위험 대상을 직접 찾아내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살 위험에 처한 대상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들과 자주 만나며 소통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일 것이다. 이들을 자살예방사업에 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자살예방사업이 바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은 주변인을 잘 살펴보고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6]. 현재 학생, 교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과 직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률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3]

사회 여러 조직 중 지역사회에 밝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통장의 특성을 활용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은 지역사회 풀뿌리조직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란 해당 지역 이·통장이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주민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사업이다. 이·통장을 자살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던 자살예방사업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7].

지역사회에서 이·통장은 매우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의 대표, 행정의 보조자 역할, 주민과 행정의 중간연결자의 역할, 비공식적인 정치적 영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자살예방 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통장과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는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자살고위험군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 사업이 기존의 자살예방사업과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중심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어 매우 특별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통장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조직과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의 경험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그들의 다양한 주관적 경험의 의미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 중 내러티브 연구가 참여자들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자살예방사업의 안정화에 중요한 정보와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현재 한국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다[8].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어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군은 대부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이다.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주요 업무는 지역 내 자살위험주민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홍보사업 등이다.

그러나 자살이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닌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단기간 내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자살예방사업의 특성상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경험 또한 다양할 것이다.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9]. 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주민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담당자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하기도 하였다[10]. 또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아 그 정도를 완충하기도 하였다[9].

2.2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 사람의 신호를 알아채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에 연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11]. 한국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와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사용하고자 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은 1960년대 후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었다[12]. 이후 1980년대 초 캐나다에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캐나다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13].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개입 전략 중에 하나이며[14],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제안하였다[15,16].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은 일반인 및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자살 위험요인을 인식하여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친

다[17,18].

Ramsay 등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13]. 전문가 집단은 의료, 사회, 간호, 심리학 등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비전문가 집단은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개입하도록 훈련 받지 않았지만,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예를 들어 성직자, 경찰, 교사 등을 말한다. 또 가족과 친구들도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13].

한국에서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은 초창기 해외 교육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자살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등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표준화되고 검증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심각한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특유의 문화와 자살 현황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3년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하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다[19].

2.3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한국사회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통적인 지지체계가 무너져 왔으며, 이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연관이 있다[20]. 전통적인 지지체계를 대신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통장 제도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핵심 추진체로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도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장과 통장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을 수렴하여 읍·면·동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지역 밀착형 풀뿌리조직이다[5]. 또, 이들은 지역 사정에 매우 밝고, 적은 활동수당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임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 무한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1]. 이런 이유로 이장과 통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리더이자, 동시에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지체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5].

이러한 이·통장의 특성을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이 바로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다. 국내에서 이·

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이다[7]. 강원도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1]. 강원도는 자살문제를 해결을 일부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이·통장연합회와 협력하여 강원도 내 4200여명의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7]. 이러한 강원도는 이·통장의 연대가 매우 끈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강원도는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

3. 연구방법

3.1 내러티브 연구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비교할 때 보다 더 개인화된 소수 개인들의 상세한 경험을 파악하는데 있어 적합하다[22]. 이는 개인의 상세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야기, 즉, 내러티브라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개인의 일련의 경험들이 담긴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며, 다시 이야기하는 재구성 과정을 의미한다. Clandinin and Connelly(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야기의 형태로 살아가며, 이야기의 형태로 과거의 삶의 경험을 전한다. 개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에는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다[22].

3.2 연구 참여자 선정

내러티브 연구방법에서 연구 참여자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자를 현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2년 이상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통해 이·통장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종사자로 선정하였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이며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처리와 개인 신상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술하였으며, 참여자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각각을 소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Age Group	Work Experience Period
J. H. Kim	mid 30s	2 year 1 month
I. S. Lee	mid 40s	2 year 10 month
Y. M. Park	late 30s	2 year 3 month

김지현: 30대 중반이다. 현재 소속된 기관이 자살예방사업 분야에서의 첫 근무처이다. 관련 분야 자격보유자를 채용해 지원해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입사 전에는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으며, 큰 관심도 없었다.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담당하는지는 만 2년이 갓 넘었다.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존과는 다른 자살예방사업 현장의 색다른 면을 발견하고 있다.

이인수: 40대 중반이다. 현재 소속기관에 입사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 2년 정도 정신질환자 대상 사회재활사업을 담당하였고, 이후 내부 인사이동으로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 담당자 지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고 조직 내 업무 분장, 인력 구조개편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되었다. 자살예방사업은 처음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전 담당사업과는 많이 다른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박영민: 30대 후반이다. 정신건강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현재 소속기관으로 4년 전 이직하여 줄곧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입사 1년 동안은 자살고위험군 지역주민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 담당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되어 혼란스러웠지만 이후 차츰 적응이 되어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맡고 있다.

3.3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존재하는 시공간, 사회와 맥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다[23]. 연구자는 초기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관련자이며

연구 참여자들과는 연구를 수행하기 2-3년 전부터 소규모 간담회나 행사에서 종종 만나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 사업 담당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3.4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연구자는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내러티브 연구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 지침과 진행방법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숙지하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쳤다.

연구자는 현재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사업 담당자 3명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1차 동의를 구한 후에도 인터뷰 진행 전에 다시 한 번 연구의 취지와 절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최종 참여 의사를 확인 후에 본격적으로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와는 개인정보와 인터뷰 내용 노출위험이 적은 상담실, 조용한 카페의 독립된 공간에서 2시간 전후의 심층인터뷰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연구의 목적과 진행순서 등에 대해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연구의 취지를 쉽게 이해했으며 연구와 기본적인 신뢰는 형성되어 있었다.

현장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 시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현장 내러티브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업 담당자로서 사업의 시작, 경험 그리고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하여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대학원 박사과정 세 학기에 걸쳐 연구윤리 및 질적 연구방법 수업을 수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 거부할 권리, 비밀보장, 익명성 등에

대해 인터뷰 전후에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사례로 인터뷰 후 사례품을 전달하여 고마움을 표하였다.

3.5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경험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각자의 인터뷰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에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자료 분석과 검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말과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경험

4.1.1 시작 - 언덕(Hill)을 바라보며

가. 부담 그리고 두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전공 관련 기관에 근무하면서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취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특정 정신질환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사람들, 즉 힘들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가진 자격과 경력을 활용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사하였고 기관의 결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기관에 입사하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다.

“처음 담당하게 되었을 때 직원들이 ‘고생하겠네요.’라며 걱정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걱정이 되고 부담이 너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임자가 작성했던 서류들을 살펴보고 이것저거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갔죠.” (김지현)

“그냥 내 담당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겨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전에는 이 사업 담당자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됐구나.’ 했었는

데 그게 왜 그런 것인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오랜 고생길, 저 언덕 오르기가 이제 시작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인수)

특히 김지현과 이인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근무가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사업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었기에 막연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직원들에게 자살예방사업 중 담당하기를 거리는 사업으로 평이 난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그것은 더 컸다.

나. 각오를 다짐

비록 힘든 업무를 맡았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업무이며 천천히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임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잡으며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임자가 작성했던 서류들을 살펴보고 이것저거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갔죠.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잘하면 좋잖아요." (김지현)

"고생길이 보여도 어찌됐어요. 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잘 하자는 생각도 했죠. 겁을 많이 먹기는 했었는데 이전 담당자만큼만 하자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죠." (이인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동료들의 걱정에서 발현된 부담감과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이며 나름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4.1.2 과정1 - 언덕(Hill)을 오르며

가. 가파른 비탈길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본격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나서 이들은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 부담을 주는 우리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사업은 광역지자체 주도로 기획되어 각 시군에 내려진 자살예방사업이다. 이런

사업 특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

"대놓고 실적이 적다고 하지는 않는데 은근 압박이 있죠. '실적으로 꼴찌만 하지 말고 중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지현)

"이·통장님을 통해 새로 의뢰된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자살시도도 하시고 굉장히 위협하셨습니다. 하필 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윗분이 저한테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한숨 한번 쉬면서 참았어요." (이인수)

"우리랑 비슷하게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연말에 상을 받았어요. 연초에 우리는 올해 그 지역처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담당자의 실적을 잘 내는 방법을 배우자면서요. 그래서 거기랑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강조해요. 결국은 실적이기는 한데 어찌라는 건지..." (박영민)

이들은 이 사업의 본질인 사각지대에 놓은 자살 고위험 주민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실적 내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타 시군과의 실적과 업무 방식 등의 비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2) 부담스러운 그분들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사업의 핵심은 이·통장의 참여였다. 기존 자살예방사업과 달리 이·통장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서 오는 힘들 또한 특별했다.

"처음 이·통장 회의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몇몇 이·통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죽을 놈들 죽게 놔두지 왜 그런데 세금을 낭비하느냐, 죽을 놈은 어떻게든 죽어!' 하며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김지현)

"이·통장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세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구하는데 보건소장이나 센

터장 그런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말단 직원이 와서 팔랑 5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협조하느냐! 며 편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중략) 활동일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달라고 했다가 '날 가르치는 것이냐!' 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이인수)

“활동비 계산은 칼같이 해야 해요. 초반에 어떤 분이 금액이 잘못됐다면서 따지듯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시켜드리느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기는 돈보다는 봉사활동으로 자살예방활동을 한다며 말씀하시는 걸 보면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박영민)

“이·통장님들에게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맞춰줘야 해요. 힘들게 설득해서 참여시켰는데 안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지요.”(이인수, 박영민)

일부 이·통장의 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 권위의식,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이었다. 그런 이·통장들의 모습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른 부담감으로 느껴졌다. 때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은 부담감을 넘어 이들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

나. 내 마음 속의 무거운 짐

1) 짐을 짐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자살위험 주민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함께 큰 부담이었다.

“상담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늘 부족함을 느껴요. 무서울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결론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라는 걸로 마무리되고는 하죠. 어떤 이·통장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뭐야 해주는 건 없고 병원 가서 약이나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도 한다.' 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면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늘 무거운 짐이죠.”(박영민)

“자살예방 상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줄 알아요. 금방 무슨 요술이라도 부리는 줄 알고 일단 죽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상담해보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금방 해결될 줄 알고 그러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이인수)

이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자신들에 대한 이·통장들의 큰 기대도 그 기대만큼 큰 부담이었다.

2) 짐을 던짐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업 초기 자신들 나름의 각오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일부 이·통장들과 기관의 모습에서 실망감과 괴리감을 느꼈다. 그것은 오히려 사업에 애정과 책임감과 같은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사람 살린다고 칭찬해 주는 분들도 많아서 사명감도 있었죠.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은 없어요. 이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그런 취지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 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거든요.”(김지현)

“이·통장님들은 이거 해달라고 하고 위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중간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권한은 없고 책임을 질 때는 많고... 그래서 그냥 딱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좀 편하거든요.”(박영민)

이들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노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겪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때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즉 적당한 수준의 노력을 들임으로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었다.

다.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연구 참여자들은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다. 그들이 힘들지만 견딜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바로 가족과 동료의 지지와 도움이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표정이 다르나 봐요. 그럴 때면 가족이 먼저 힘들었냐며 물어봐 주죠. 그리고 물꼬가 터지면 누구 흉도 보고 때론 욕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가족들이 더 욕을 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좀 편해져요.”(이인수)

“제가 한번은 실수를 해서 이·통장님이 항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좌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를 해도 그걸 가지고 일을 잘 못하네. 어찌네 하면서 여기저기에 말씀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 땐 정말 눈물에도 나고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위로해 주고 팀장님이 대신 사과도 해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려고 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센터장님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아시고 위로도 해주셨고요. 그래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지지가 되더라고요.” (김지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들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 서로 격려해 주는 가족과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 문제 발생 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지지해 주는 동료들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4.1.3 과정2 - 언덕(Hill)을 오르는 힐링(Healing)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담당하면서 매우 다양하게 버겁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경험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몇몇 이·통장님들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한데 한 이·통장님이 나서서 ‘우리 마을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 살린다고 고생들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파도는 내지 말아야지!’ 라며 다른 분들을 설득시켜주시는데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통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분도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 귀찮다며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도 받으시고 활동도 하시다보니 변하셨죠. 그게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김지현)

“한 여름에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이·통장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면서 고생한다면서 음료수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세요. 어떤 분은 연말에 직원들 다 못 주니까 저한테만 물레 선물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작지만 그 성의가 너무 고맙잖아요.” (이인수)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 사람을 알게 되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분 집이 낡아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찌나 하고 있었는데 한 이·통장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데 알아봐 주신다는 거

예요. 그리고 그 이·통장님을 통해 연결된 분이 정신장애인 그분 사정을 듣고는 많이 싸게 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때 그 담당자가 저한테 연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좋은 것도 있어요.” (박영민)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통장은 부담감,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업의 짐이기도 했지만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든든한 지지자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이들보다 먼저 나서서 사업 참여를 설득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력자이기도 하였다.

4.2 자살예방사업을 위하여

- 힐링(Healing)의 언덕(Hill)을 위한 바람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로서 이 사업에 대한 감회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이야기하였다.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활동비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 참여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지만 지원이 중단되면 이·통장님들이 많이 안하실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쥐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중략) 그리고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해요. 연말에 상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 주면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현)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자살이 문제라는 걸 알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자살을 많이 한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 정도일지는 몰랐던 분들이 많으세요. 이 활동을 하는 이·통장님들은 동네사람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시나 해서요. 그런 것만 봐도 성공한 거죠.(중략) 그런데 사업 담당자로서는 사업매뉴얼, 그런 게 없으니까 자주 다른 지역에 물어보게 되고 거기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할 경우도 많고...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영민)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많아요. 자살예방하는 게 끝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일 하는 분들에게 자살에 대한 책임을 자살예방사업 담당자가 모두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해요. 저희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이인수)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그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의 사업 방식으로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사업 담당자도 이 사업의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도 제안하였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에 대해 내러티브적 접근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입사를 하면서 담당하거나 보이지 않는 순서가 되어서 담당하게 되었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지식, 사전 준비 부족과 자살예방사업 중 힘든 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들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비록 힘든 업무를 맡게 되어 심적 부담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깐 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회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취하였다.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기관 내부와 외부 요인 이·통장들에게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먼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이 상위 기관에서 기획되어 각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이 사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주민을 발굴해 안정화시키는, 즉 질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만 아니면 된다, 일부 주민에게만 집중하지 마라, 다른 지자체가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등 실적에 더 치중하는 모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통장들에게서는 사업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 그들의 권위의식, 불성실한 참여 등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살예방상담과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 등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과 이·통장들이 기대하는 단기간 내 자살위험 주민의 변화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낸다. 사업 담당자로서 이 사업에 대한 과도한 노력과 집중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방법은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또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큰 힘이 되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든 경험을 했지만 항상 부정적인 경험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통장들은 먼저 나서서 다른 이·통장 설득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며 인간적 정을 나누기도 하는 등 연구 참여자들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해 현재 사업 방식에 대한 수정과 이·통장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살을 감소를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이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15-18]. 그 중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과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는 성직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상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그 효과성도 입증되었다[24].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현재까지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의 경험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통장들이 순수한 자살예방활동보다 금전적인 지원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어려움 중 일부였다.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이·통장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가 금전적 지원보다는 이·통장으로서의 사명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 예산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과 지원 방식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이들은 자살위험 주민뿐만 아니라 이·통장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사업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스트레스, 부담감 등 부정적 감정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우수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도, 업무 순환제도, 공동 담당제도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그 기간이 단기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론을 접목하기보다는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보람과 자신감 고취를 위한 포상제도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사업 지역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 사업 담당자가 포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상으로 간주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셋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추진이 관 주도하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이나 담당기관장과 이·통장 단체장과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여 일선 이·통장들에게 사업에 대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살예방사업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며, 사업담당자보다는 기관의 장들이 앞장서는 노력이 절실하다. 해마다 일정부분 이·통장 및 이·통장 단체장이 변동되고 있다. 이때마다 사업담당자는 신입 이·통장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연례행사로 구축시킨다면 해결이 가능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살예방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 많은 사업들이 일정기간 추진된 후 여러 이유로 축소되거나 종결되고 있다. 지속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자살예방사업이다. 때로는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 유지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노

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매뉴얼 개발, 성과보고회, 관련 연구 지원 등도 이에 포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에 걸 맞는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사업 담당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다소 단편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Korea.*
- [2] OECD. (2020). *Suicide rates in Health status Data.*
- [3] Related ministries. (2018). *Suicide Prevention National Action Plan, Korea.*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Mental Health Services Guide. Korea.*
- [5] J. Y. Kim, J. W. Hwang, D. H. Lee & K. U. Lee. (2018).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y Participation of Community Grassroots Organizational Leader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4), 223-233. DOI : 10.5392/JKCA.2018.18.04.223
- [6] J. W. Paik, S. J. Jo, S. J. Lee, J. Y. Ong & J. I. Park.(2014), The Effect of Korean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Intervention by Gatekeepe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3(6), 358-363. DOI : 10.4306/jknpa.2014.53.6.358
- [7] T. C. Kim. (2020). Community Suicide Prevention Project Evaluation-Effective Improvement of the Gatekeeper Training Program in Gangwon-do, *14th Suicide Prevention Comprehensive Conference 2020, Korea.*
- [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Korea.*
- [9] M. R. Lee. (2014),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Suicide Prevention Counselor.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308-318. DOI : 10.5392/JKCA.2014.14.02.308
- [10] S. S. Choi & J. M. Ha. (2012). The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Online Counseling.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5-30.

- [11] M. W. Lewis & A. C. Lewis. (1996). Peer helping programs: helper role, supervisor training,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3), 307-313.
DOI : 10.1002/j.1556-6676.1996.tb01871.x
- [12] M. Isaac, B. Elias, L. Y. Katz, S. L. Belik, F. P. Deane, M. W. Enns & J. Sareen. (2009). Gatekeeper Training as a Preventative Intervention for Suicide: A Systematic Review.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4), 260-268.
DOI : 10.1177/070674370905400407
- [13] R. F. Ramsay, M. A. Cooke & W. A. Lang. (1990). Alberta's Suicide Prevention Training Programs: A Retrospective Comparison with Rothman's Developmental Research Model.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0*, 335-351.
- [14] J. S. Park & J. H. Park. (202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atekeeper Behavior Scal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9*(2), 170-174.
DOI : 10.4306/jknpa.2020.59.2.170
- [1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Preventing Suicide: A Technical Package of Policy, Programs, and Practices, Georgia*. Available onlin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suicidetchnicalpackage.pdf>.
-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progress, examples and indicators, Geneva*. Available online: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279765/9789241515016-eng.pdf?sequence=1&isAllowed=y>.
- [17] M. S. Gould & R. A. Kramer. (2001). Youth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1*, 6-31.
- [18]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2).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s: a resource guide. Atlanta (G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vailable online: <https://wonder.cdc.gov/wonder/prevguid/p0000024/p0000024.asp>.
-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Developing Korean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Bo-go Deud-go Mal-haki'*, press release.
- [20] S. S. Shin & Y. J. Shin. (2017). A Multilevel Analysis of an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ult Korean: Using the 2013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5*, 187-218.
- [21] Y. S. Han & P. D. Kim. (2003). The Improving Plan and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Tong · Li · B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5*(1), 25-45.
- [22] K. H. So, H. S. Kang, D. J. Jo & M. J. Park. (2007).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D. J. Clandinin, F. M. Connelly, Trans.), kyoyookbook Publisher, Gyeonggi,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23] E. M. Lim. (2019). A Narrative Study on Teachers' Cultural Diversity Experience: Focused on Femal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6*(2), 205-232.
DOI : 10.24211/tjkte.2019.36.2.205
- [24] S. Terpstra, A. Beekman, J. Abbing, S. Jaken, M. Steendam & R. Gilissen. (2018).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training in the Netherlands improves gatekeepers' knowledge of suicide prevention and their confidence to discuss suicidality, an observa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8*(1), 637.
DOI : 10.1186/s12889-018-5512-8

김 정 유(Jung-Yoo Kim)

[정회원]



- 2021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살예방
- E-Mail : corea-yes@nate.com